



# 순천시 낙안읍성 올해 방문객 100만명 돌파

### 202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순천시는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경 낙안읍성의 올해 방문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낙안읍성에 지난해 총 86만여명이 방문한 것에 비해 관람객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10만 번째 관람객 주인공은 장정심(56, 인천광역시 부평구)씨로 "낙안읍성에서 이런 행운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 친구들과 과거의

생생한 역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느끼고 다음에는 낙안 조가민 박물관 이용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심 씨에게는 축하 꽃다발과 함께 낙안읍성 진경 작품사진 및 낙안읍성 보존회에서 준비한 조가민 박 이용권, 서각명인의 작품을 증정했다. 또, 함께한 일행들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조선시대 역사와 전통이 오롯이 살아있는 사적 302호 낙안읍성은 언제나 정겹고 넉넉한 어머니의 품 같은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로 선조들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 있는 600년 조선시대 문화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한양성을 본떠 만든 우리나라 유일한 읍성으로 올망졸망 그림처럼 펼쳐지는 조가지붕 아래 예스러운 풍경들이 세월의 깊이를 더듬은 삶의 향기가 흐르고 98세대 228여명이 이웃한 소박한 서민들의 터전이다.

강철웅 낙안읍성장은 "600여년의 전통을 이어온 낙안읍성은 202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다. 방문객 눈높이에 맞춰 낙안읍성에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재현, 주말상설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 천년까지 이어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

### 치매 선별 검사 무료 실시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나주시는 지난 1일, 지역 내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운영한다

고 밝혔다.

보건소 건물 3층 임시 마련된 나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구축된 시설이다.

나주시는 현 보건소 내에 국·도비 및 시비 10억 원을 투입, 내년(2018) 상반기 정식 개소를 목표로 연면적 500㎡ 이상 증축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급원 임시개소를 통해 나주시는 치매관리 전문인력 4명을 확보,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무료 선별검사를 비롯해 △1:1사례관리, △치매단기원(낮 시간 보호), △환자 가족 돌봄을 위한 치매카페, △방문형 치매예방 종합서비스 등을 운영·제공하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관내 치매 어르신과 가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폭넓고 다양한 치매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치매 환자 부양에서 비롯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역 치매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광양시, 겨울철 상수도 동파 예방 종합대책 추진

### 긴급복구 4개반 편성 내년 2월까지 24시간 비상근무

광양시는 동절기 상수도 시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겨울 극심한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 20명으로 상수도 시설 점검·정비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점검반은 현재까지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1개소, 가압장 26개소,

급수전 17,495전 등 상수도 시설물 사전 점검을 마무리 했다.

또 긴급복구 4개반을 구성해 동절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며, 상수도 시설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과 수도대행업소를 대상으로 동파방지 및 조치 사항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과 검침원을 통해 각 가정에 동파예방 및 대처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규광 상수도과장은 "이런 겨울에도 철저한 준비와 예방으로 동파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각 가정에서도 계량기 보호 등 동파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수도 동파·누수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접수 창구(주간 : 797-2533, 3585 이간 : 797-4963)로 신고하면 된다.

광양=김종권 기자

## 광양시, 2년 연속 저출산 극복 우수기관으로 선정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수시책과 저출산 극복 기반 다져



광양시는 지난 11월 30일 전남도 저출산 극복 추진 종합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남도지사 기관표창과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추진 실적과 출산율 및 출생아수, 사업추진 노력도 등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에 대한 평가와 사례발표를 통해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임신·출산분야 지원,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과 캠페인, 손주사랑 돌봄이 교육, 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출산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우리시의 젊은 도시 특성에 걸맞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월 신생아양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첫째아 500만 원부터 넷째아 이상 2천만 원까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첫째아 500만 원 지원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정욱 출산지원팀장은 저출산 인식개선에 따른 창의적 사업과 다양한 시책 개발 등 타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우리시만의 우수시책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우리시민의 출산 장려시책들을 만들어 나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가겠다"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종권 기자

## 화순군, AI 예방 합동방역 '총력'

### 인접 시군 경계지역 하천변 집중 차단방역

화순군은 고병원성 AI 예방 합동 방역활동을 펼치는 등 인접시군 경계지역 하천변 집중 차단방역에 나섰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장과 순천만 철새

및 제주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AI예방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 활동 일환으로 인접 시군 경계지역에서 농·축협과 합동으로 1일 도곡면 지식천 일대에서

집중 방역활동을 펼쳤다.

방역활동에는 행정 농축협등 방역방제기 및 공동방제단 방제차량 등 5대가 동원되고 20여명이 참여했다.

구룡군 화순군수는 연일 방역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농·축협 직원을 격려하고, 직접 방역방제 차량에 탑승해 방역 활동에 참여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조중훈 순천시장, 우리글 사랑 자치단체 대상

### 관광분야 수상

순천시는 (사)우리글진흥원(원장 강상현)으로부터 2017 우리글 사랑 자치단체대상(관광분야)을 수상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우리글 사랑 자치단체 대상은 바르고 쉬운 우리글 사용에 앞장서 다른 자치단체의 귀감이 된 순천시와 서울 중구 두 곳을 선정하여 수상한 것이다.

순천시는 관내 관광지에 있는 해설관(270개소) 등을 우리글 기준에 맞게 표기하고 정비하여 공공문장의 모범을 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중훈 시장은 "SNS 등을 통해 신조어가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기에 앞으로도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글로 모범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시는 올해 900만 관광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관광안내판과 해설판 등을 우리글에 맞게 표기함으로써 품격 높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